

나의
수리점!
나의수리점!
나의수리점!

무엇이든 고치는 '수리상점 곰손' 망가져도 괜찮다, 위로 건네요

'수리상점 곰손'은 기후 위기의 시대, 우리 모두가
마주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리'라는
키워드에 주목한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망가진 물건은 고칠 수 있어서, 손재주가 없어도
고칠 수 있어서! 글 윤나래 기자 사진 박진주 기자, 저두제공

“내가 만들고 싶다고 늘 생각한 곳이에요.”

올해 2월 문을 연 수리상점 곶손을 다녀간 이가 남긴 메모를 보니 수리상점이라는 낯선 단어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물건이 귀하던 시절에는 고쳐 쓰는 게 당연했고, 직접 손보지 못 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수리 전문가가 많았다. 그 런데 요즘 우리는 물건을 고쳐 쓰는 일이 되레 번거롭고 수고로 우며, 새로 사는 것이 편하고 때로는 더욱 저렴하기까지 한 시대 를 살고 있다. 애니 레너드는 <물건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러한 세태를 ‘소비주의가 아니라 과다 소비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수리상점 곶손에는 이 문장을 포함해 여러 의미심장한 문구가 전 시돼 눈에 띈다. 이 문구들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분쇄해 녹여 만 든 판에 적혀 있는데, 언뜻 보면 대리석 무늬처럼 보이기도 한다. 병뚜껑 하나 허투루 보아 넘기지 않는 이들이 모여 수리상점 곶 손을 만들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망원시장의 한 귀퉁이, 수리상점의 마스코트가 곶손을 들어 방문객을 환영한다.

쓰레기 발생 막는 파수꾼

수리상점 곶손은 6명의 공동 운영자(활동명 금자·깡쌈·밍키·성연·자두·혜몽)가 요일마다 곶손지기로 나 서 공간을 지킨다. 곶손지기들은 수리상점 곶손과 도 보 2분 거리에 있는 국내 1호 리필스테이션이자 제로 웨이스트 숍인 ‘알맹상점’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함께 환경도서를 읽고 쓰레기 처리장을 찾아다니며 제조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등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각종 캠페인과 활동을 벌여왔다.

취재일의 곶손지기는 활동가 자두 씨. 그의 본명(정명 희)은 1998년부터 녹색연합에서 활동한 환경운동가이자 환경 분야 저자로 알려져 있다. 이날은 수리상점 곶손에서 그의 신작 <엄마의 환경 수업> 북 토크가 예정되어 있었다. 북 토크 시작 전, 그는 시장 곳곳을 누비며 불필요한 포장이나 쓰레기가 없도록 다과를 준비했다. 챙겨간 용기에 음식을 담아오는 그의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알맹상점의 매니저로도 일하고 있어요. 알맹상점은 판매 물건



1 '수리상점 곶손'의 이용 현황과 환경 문제를 다룬 문구들이 재활용 플라스틱 판에 써 있다. 중고 물품을 올려둔 선반도 재활용 플라스틱이다. 2 수리상점 곶손을 다녀간 이들이 소감을 남겨둔 공간. 3 아이폰의 낡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수리 도구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지금까지 100명이 넘었다.





1 '비건 모찌리도후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는 금자 씨(가운데)와 참가자들. 2 수리상점 곰손에서 한 참가자가 이가 나간 도자기를 수선하고 있다. 3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작가 선반'에 판매용 플라스틱 재활용 빗이 놓여 있다.



을 진열한 매장이자, 안정적으로 환경 교육과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수리상점 곰손을 열게 됐죠. 지난해 알맹상점이 진행한 아이폰이나 우산 수리 프로젝트 등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수리에 관심이 많아졌고요.”

알맹상점이 포장 쓰레기 없이 내용물만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라면, 수리상점 곰손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공간인 셈이다.

“알맹상점은 우리가 흔히 버리는 물건이 처리 과정에서 잘 재활용하도록 연결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리기 전에 재사

용할 수 있다면, 즉 우리에게 수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거야말로 과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는 방법이 될 거예요.”

수리상점 곰손은 ‘수리’를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과 라이프스타일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두 씨는 수리상점 곰손의 이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 번째는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3시간 동안 공간 이용료 5000원을 받고, 음료를 드려요. 수리 공구를 이용해 직접 물건을 고쳐도 되고, 비치된 책을 보거나 다회용기를 대여해 망원시장의 맛있는 먹거리를 사와서 드

셔도 돼요. 시장에서 불편하게 드시지 말고 여기에 오셔서 편하게 드세요.”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기획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소를 대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바느질·뜨개질·재봉과 같은 의류 수선, 도자기나 나무 식기 수선, 아이폰 배터리 교체, 우산 수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 물건을 내가 고쳐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마지막은 물건을 교환하는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입다연구소의 의류 교환 행사인 ‘21%파티’를 열기도 했는데요, 교환이라는 행위가 선물을 주고받는 긍정적인 정서를 선사해주더라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음마켓’도 기획하고 있다고.

이토록 우아하고 즐거운 수리생활

이날 다른 활동가 금자 씨는 ‘비건 모찌리도후(잡쌀떡두부)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금자 씨는 워크숍을 끝낸 후 “비건인 동시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식자재를 찾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요리 시작에 앞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료를 준비했는지를 소개했다”며 워크숍의 과정을 전한다. 또 “오늘의 요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참여한 곰손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이러한 과정에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환경을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우아하다고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금자 씨의 말에 자두 씨도 공감한다. 수리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금손처럼 고치지는 못하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요? 다른 곳에서는 뽀뽀뽀뽀 바느질로 양말을 고쳐 신는다고 하면 공상맞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리상점 곰손에서는 그런 양말이 새 양말보다 더 멋지다고 서로 박수쳐주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우산 하나도 사연이 있어 수리하고 싶다는 분, 깨진 도자기도 다시 고쳐 쓰고 싶다는 분들이 찾아오세요.

무엇보다 수리의 경험이 쌓이면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긍심과 자기효능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내 상처를 내가 다독여 준 것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니 서툰 곰손이라도 수리상점의 문을 두드릴 일이다.

“수리가 망설여지는 이유로 기술 자체가 낯설거나, 공구를 다루는 게 두려울 수도 있죠. 공구를 갖추는 게 부담일 수도 있고요. 수리상점에 다양한 도구를 갖추고 있을게요. 언제든 놀러오세요.”

그는 공구나 도구를 다루는 일에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다고 말한다. 나 자신의 일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지,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한정 지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리상점 곰손을 나서며 기자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의미로 망가진 라디오 하나를 맡겨두었다. 더 괜찮은 내 모습이 필요한 날, 망가진 라디오를 고치러 수리상점 곰손의 문을 열어야겠다. ■



1 우산을 수리하는 학생들. 고치지 못하는 우산은 버리지 않고 수선용 부품으로 사용한다. 2 고장 난 라디오를 고치기 위해 공구를 들었다. 3 자두 씨가 수리를 위해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았다.



2



3